



## 채만식론

---

저자            김상선  
(Authors)

출처            [비평문학](#) , (1), 1987.7, 13-25 (13 pages)  
(Source)        [Literary Criticism](#) , (1), 1987.7, 13-25 (13 pages)

발행처        [한국비평문학회](#)  
(Publisher)    The Society Of Korean Literary Criticism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0055085>

APA Style      김상선 (1987). 채만식론. 비평문학, (1), 13-25.

이용정보      고려대학교  
(Accessed)    163.152.133.25  
                    2016/06/13 16:52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 蔡萬植論

—특히 그의 문학 형성과  
사상적 빛깔을 중심으로—

김 상 선 (文學評論家)

## 〈차 례〉

- |              |             |
|--------------|-------------|
| 1) 고향 산천     | 4) 니힐리즘의 극복 |
| 2) 가난과 문학 정신 | 5) 사회주의 사상과 |
| 3) 로맨주의적 빛깔  | 민족주의적 빛깔    |

## 1) 고향 산천

채 만식의 소년 시절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분으로 큰 형수 이 선하씨를 들 수 있다. 이 분은 1888년 생으로 어머니처럼 따스이 보살피 주면서 자신의 박식한 역사 지식을 들려주곤 하였다. 후에 채 만식이 역사 소설 「옥랑사」(玉娘祠)를 쓰게 된 동기가 이로부터이고, 내용도 형수에게 들은 이야기에서 유래한다.<sup>1)</sup>

그가 자랐던 곳은 이리(裡里)와 군산항(群山港)의 중간 쯤 되는 곳에 한 마을을 이루고 있는 조그마한 임피면 읍내리요, 거기에서 그는 그의 나이 15, 6 세까지 뛰고 놀면서 자기 나름의 꿈을 키웠던 것이다.

本是 山은 높지도 못한것이 水石도 없어 平凡하고 물은 앞과 뒤로 萬頃江과 錦江이 흘러 있으며 少年이 자주 놀기에는 三十餘里 相距라 逍遙할 뿐더러 風景이 亦是

1) 윤환숙, 「새 資料로 본 蔡萬植의 生涯」, 『文學思想』, 1973년 12월호, 333쪽 ~ 334쪽.

凡常하다.

해서 누구나 그렇듯이, 나도 絶妙한 或은 偉大한 自然의 景致를 無意識中에 그리  
는 少年의 憧憬은 겨우 앞 南山에 올라 金萬頃平野를 바라보는 것으로 허전한 마음  
을 채우곤 했었다.<sup>2)</sup>

남산에 올라가 만경 평야를 바라보면서 허전한 마음을 채웠다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계절에 따라 그것대로의 변화가 있으며, 평야를 바라보고 있노  
라면 마음이 티이는 것 같고, 무엇인가를 꼼꼼히 생각해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다.

봄이면 진달래를 꺾으며 南山을 올라가 들을 바라보고 놀았고, 여름이면 南山밑  
冷泉으로 백을 감으러 갔다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들을 바라보고 놀았고 그리고  
가을에는, 이 세 季節中에 가을이 가장 좋은 때였었다.

벼가 한참 익는 秋夕쯤 南山 上逢에를 올라서서 밭 아래로 아무 거침 없이 퍼져  
나간 「萬成里 벌판」 그렇다 우리계서는 지방도 金萬頃平野를 「萬成里 벌판」이라고  
부른다. 그 萬成里 벌판을 내려다 보는 마음은, 가령 妙하다던가 莊嚴하다던가 한  
自然을 對하는 때의 기쁨은 아니라도, 어디라 없이 마음이 흰하니 티이는것 같고  
하면서 方便 무엇인가가 꼼꼼히 생각켜지는것이 있었다.<sup>3)</sup>

멀리서 바라보는 경치이기 때문에, 벼 이삭이 벼 이삭으로 보이지 않고,  
다만 등황색(橙黃色) 물결이 망망하게 퍼져 나갈 뿐이요, 또 것처럼 퍼져 나  
가다가 서남방(西南方)으로 뜻하지 않게 만경강(萬頃江)이 마치 누가 흘리  
고 간 허리머처럼 오불고불 은빛으로 빛나고 있는 것은 아주 보배로운 이채  
(異彩)라 아니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리에서 목포(木浦)로 가는 차가  
아물거리며 달아나는가 하면, 바로 밭 밑에서는 조그만한 야산(野山) 모퉁  
이로 군산서 이리로 가는 차가 지베처럼 찾길을 지나간다. 들이 퍼져 나가다  
가 그만 지친듯 끝이 사라지는 곳에 완연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은 연산(連山)  
이 암암하니 둘러 있다.

이 산들을 왼쪽으로부터 쳐보면, 고산(高山)·전주(全州) 등지(等地)에서  
시작한 연봉(連峯)이 혹은 이어져 혹은 끊기어 금구(金溝)계로 돌아 바른편  
의 부안(扶安)·변산(邊山)에까지 첩첩이 쌓여 가지고, 이를테면 금만경 평  
야를 병풍 두른 형용이라 할 수 있다. 산 너머로는 가을이라, 흔히 정갈스런

2) 蔡萬植, 「萬頃平野」, 『女性』, 1938년 9월호, 41쪽.

3) 위의 책, 같은 곳.

구름이 솜같이 보드랍게 피어 오르고, 그런 때면 저 산 너머 구름 밖으로 어떤 세상이 벌어져 있는고—이런 것을 나는 생각하면서 남산 위에 앉은 채 해가 가는 줄을 잊곤 하였다. 흰 구름이 가장자리를 주름 잡아 선 두르는 파란 하늘, 구름 아래로는 엷은 남빛으로 아스라한 연산의 봉우리를, 그리고 고개를 숙이는 대로 한 순간에 발밑에까지 들이대는 등황색 넓은 들판……이렇게 내다보고 들여다 보고 하다가 지치면 손 가까이 피어 흐드러진 하얀 들국화를 꺾어 그 한 떨기 꽃송이에서 가득히 드리운 가을의 향기를 맡기도 하는 것이다. 가을의 금만경 평야를 나는 아무더러나 구경하라고 권하고 싶진 않다. 그러나,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빈약하나마 소년 적의 정서를 기른 나에게게는 보다 좋은 자연경(自然景)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sup>4)</sup>

어린 시절을 이러한 고향 산천의 영향을 받고 자라난 채 만식은 자기 나름의 꿈이 싹트고, 그 꿈이 아름답게 수놓여졌었을 것이다. 그가 자란 고향은 다른 산천에 비해서 크게 자랑할 만한 경관을 갖추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소년 시절의 그에게 자못 신기하고 뿌듯하며 이채롭게 비쳐들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었을 것이다. 말하자면, 그의 고향은 그럴 듯한 풍경이나 역사의 자국이 박힌 정자(亭子) 하나도 없고 기괴한 바위 하나도 없지만, 소년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하나 둘 쯤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라는 뜻이다. 이에 앞에서 보인 만경 평야 말고 다른 또하나의 풍광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임피 팔경(臨陂八景)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그래도 그럴싸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오성 낙조(五聖落潮)이다. 여기의 ‘오성’이란 오성산(五聖山)을 가리킨다. 임피에서 서북(西北)으로 25리 쯤 되는 길이다. 산꼭대기에 올라가 남쪽으로 바라보면, 개미집 같은 임피읍과 남산을 넘어 그야말로 일망 무제(一望無際)한 금만경 평야와, 그리고 만경강(萬頃江)이 좁다란 찌처럼 바라보인다. 이 평야가 다다른 곳은 그림 속의 병풍같이 암암한 전주·남원(南原) 등지(等地)의 연만(連巒)이다. 북쪽으로는 충남 일판이 눈에 들어온다. 그 가운데에서도 한산(韓山)이나 서천(舒川)은 바로 발 아래로 내려다 보인다. 그리고 서쪽으로 군산 앞에서 입이 확 퍼진 금강의 강어구가 망망한 바다처럼 내려다 보이는 것이다. 오성 낙조의 파노라마는 여

4) 위의 책, 41쪽~42쪽 참조.

기서 벌어진다.<sup>5)</sup>

넘어가는 붉은 해수덩이가 한치한치 기울어지다가 문득 江面一帶는 壯麗한 黃金구비로 變하여바랍니다.

지금갓치 世上이 통틀어

「金! 金!」하고 金에 주린 悲鳴을 지르는날 그런사람들에게 이것이나마 보여주었으면 저윽히 시장하기라도 뉘할 결요.

落潮를 別로 만히 구경하지못한 나에게는 그것이 世上제一가는 眞스것듯만십히 미상불 펍 도았습니다.

글세 몇分前까지도 高요(遠景으로)하든 睡眠에서 보기에다 찬란한 싯누런 黃金波도가 굴실굴실 뛰놀고있스니……. 쫓이 나한 別有天地에 온듯이나 십허 황홀한 정신으로 바라보고 잇는동안에 金波는 더욱더욱 홀난스러워갑니다.

그리하다가 해가 점점 더 기울어저감에 金波도 조곰씩 조곰씩 高요하여지고 日沒이 되고나서는 아슴푸레한 夜幕이 江위로 덮히기 시작합니다.

이 변사가 계속되는것이 겨우 三十分쯤.

동안이 짧은만큼 神奇한품은 더하였습니다.<sup>6)</sup>

지는 햇빛을 받아 문득 江面(江面) 일대가 황금굽이로 변하는 신기한 장면을 보면서도, 채 만식은 온통 金에 굶주린 세상사람들에게 이 광경이나마 보여주면 시장기라도 면할 것이라는 상상을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그의 특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고향 산천의 아름다운 풍광을 보고도 가난에 찌든 사람들을 생각하는 채 만식이었던 것이다.

## 2) 가난과 문학 정신

채 만식은, 앞에 보인 수필처럼,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보고도 굶주린 사람들에게 황금 물결을 보여주고 싶다는 녀두리를 털어놓는 것이 예사였다. 가령,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주인공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곧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하겠는데, 그의 수필 「밥이 사람을 먹다」<sup>7)</sup>를 그것의 보기로 들 수가 있다. 이 수필은 김 유정(金裕貞)의 비참한 최후를, 그것도 가난 때문에 빚어지는 참상을 그린 것이다.

5) 蔡萬植, 「五聖落潮」, 『新東亞』, 1932년 9월호, 69쪽~70쪽 참조.

6) 위의 책, 70쪽.

7) 蔡萬植, 「밥이 사람을 먹다」—裕貞의 군검을 놓고—, 『白光』, 1937년 5월호, 156쪽~157쪽.

폐결핵 제3기에서 골골하던 유정이 죽은 것은 속일 수 없는 사실이다. 그 병을 초기에 잡도리하지 못하고 제3기에 이르게 한 것도 가난한 탓이요, 그를 불시로 죽게 한 것도 가난 때문이었다. 폐를 앓는 사람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약을 먹으면서 몸과 마음을 꼭 쉬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유정도 그랬어야 했고, 또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정은 그러지를 못하고 소설이라는 것을 썼다. 소설 쓰는 것이 해로운 줄 빨리 알면서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유정은 단지 원고료의 수입 때문에 소설을 쓰고 수필을 썼던 것이다. 원고료! 400 자 한 장에 50 전을 받는 원고료를 바라고 피쉬인 침을 빨아가면서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유정은 그 원고료를 받아서 밥을 먹었고, 그러다가 죽었다. 이것은 사람이 밥을 먹은 것이 아니라, 밥이 사람을 먹은 것이다. 지금 조선은 가난하다. 그래서 누구 없이 고생들을 하며 비참하게 굶기는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채 만식은 문학에 대한 깊고 깊은 집념을 버리지 않고 다음과 같이 토로한다.

문단인은 ‘흥보’(興甫)가 아니다. 종족(種族)을 표현하는 것은 예술, 그 가운데에서도 문학이다. 폴란드(Poland)를 지탱한 자는 코작(Cossach)이나 정치가가 아니다. 폴란드말로 된 문학이요, 작가들이다. 지금 조선에 문학적으로 종족적 특색을 가진 것이 있다면, 문학 밖에 더 있느냐? 그렇건만 작가는 가난하다 못해 피를 토하고 죽지 아니하느냐! 아무리 빈약하다 하더라도, 지금 조선의 작가들이 하루 아침에 붓을 꺾고 문학을 버린다면, 조선의 적막한 품이 인구의 반이 준 것보다 더하리라는 것을 생각인들 하는 자 있는가 싶지 아니하다. 제2의 유정은 누구며 제3의 유정은 누구뇨?

비록 제2의 유정이 나오고 제3의 유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채 만식은 소설을 써야 한다고 부르짖는다. 문학이 없으면 그 민족도 끝장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조선은 참으로 좋은 소설을 가지지 못했소. 바야흐로 인제는 그것을 가져야 할 때요. 소설을 잘 쓰지 않고는 참으로 좋은 소설을 가질 수가 없소.”<sup>8)</sup>—이렇게 생각하는 채 만식은 소설을 잘 쓰기 위해서 우선 ‘정당한 의미의 기교’를 내세우는 것이다. 관찰하고 생각해서 얻은 하나의 테

8) 蔡萬植, 「小説을 잘 씁시다」—創作界에의 提言—, 『朝光』, 1940년 7월호, 140쪽.

에마를 마침내 예술적으로 형상화시키는 소임은 전혀 그의 예술가적인 솜씨, 곧 기교에 달렸기 때문이다. 시방 조선의 문학처럼 전통이 서지 않아서 독자적인 성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내용보다도 우선 기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sup>9)</sup>

그러므로 나도 공부를 하겠다. 소설을 잘쓰는 공부를 겨울리 않겠다. 장차 어느 날 까지가 나의소설 쓰는 날일른지는 나는 期約을 못한다. 그러나 小說쓰기를 그만두는 그날 그時刻까지는 꾸준히 小說 잘쓰는 공부를 할 생각이다.<sup>10)</sup>

채 만식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꾸준히 작품 활동을 계속했던 것이다.

### 3) 로맨주의적 빛깔

채 만식은 문학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창작 활동을 한 사람이었다. 또한 그에게는 소년 시절의 꿈이 아름다웠던 것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이상이 간직되어 있었다. 그러나 언제나 현실은 그 이상을 용납하지 않았다. 현실과 이상의 갈등이요, 알력이었다. 가장 손쉬운 예로서, 여성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면모를 찾아볼 수가 있다. 실제로 결혼 생활을 했던 그의 첫째 부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둘째 부인에 대해서도 채 만식은 실망했다. 두 부인 모두가, 그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여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두 여인보다는 강화도에서 만났다는 c라는 여인이 보다 더 이상적이었을 것이다. 사랑했으면서도 그 사랑이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마 채 만식은 이러한 계통의 것에서 보다 아름다운 꿈같은 것을 찾으려고 한 것 같다. 보기를 들면, 어렸을 때의 추억을 그리는 것이 곧 그것이다. 소년 시절의 체험이 강렬하여, 장성한 뒤에도 잊혀지지 않는 아름답고 고운 추억이란 어느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이에 열네 살이 아니면 열세 살 때—그러니까 보통학교(普通學敎) 3·4 학년 쯤 될 무렵의 채 만식의 잊혀지지 않는 체험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11)</sup>

9) 위의 책, 142쪽~144쪽 참조.

10) 위의 책, 145쪽.

11) 白菱, 「碧桃花에 어란 옛記憶」, 『藝星』, 1931년 4월호, 134쪽~136쪽.

무슨 일로 어떻게 해서 나 혼자 읍에서 10리 가량 떨어져 있는 마을의 어느 집 앞에 있는 우물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지 모른다. 우물은 파란 동청(冬靑)나무로 울이 둘리어 있고, 한 편이 터져서 드나들게 되어 있었다. 그 터진 데로 쭉 들어서니까 웬 처녀 하나가 물동이를 옆에 놓고 마침 두레박줄을 잡아올리고 있었다. 목이 마른 나는 덮어놓고 “물좀 먹자”하고 와락 덤벼들었다.

뜻하지 아니한 침입자 때문에 그 처녀의 평화로운 크막한 두 눈이 휘둥그래지고는, 얼굴이 수줍음에 빨개지면서 그대로 고개가 푹 숙으러지는 것이었다. 나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것같이 기뻐다. 처녀는 두레박을 올려 자루를 쥐고 고개를 숙으린 채 그대로 있기만 하였다. 시원스러운 맑은 물이 줄줄 흘러 내리건만, 나는 물을 받아먹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처녀의 동백기름을 발라 한 가운데로 가리마를 곱게 갈라 빛은 머리와 빨개진 두 귀를 쳐다보고만 있었다. 그러자 열 여섯 살 쯤 되어 보이는 그 처녀는 참다 못한 듯이 나를 쳐다보는 것이었다. 나는 두레박을 받아 벌컥벌컥 물을 들이켰다. 이 때 “쌔에다 대구!”라는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대로 서서 물을 마셨기 때문에, 턱으로 흘러내린 물이 줄줄 우물로 흘러 들어갔던 것이다. 나는 무덤하여 허둥거렸다. 처녀가 해죽이 웃었다. 아름다운 웃음이었다. 무덤한 바람에 물도 만족히 먹지 못하고 돌아서서 울 밖으로 뛰어나가다가, 섭섭한 생각에 나는 뒤돌아 보았다. 그 처녀가 까웃이 동청나무 울 밖으로 나를 내어다보고 있었다. 그 때에 문득 보니까 그 우물을 둘러싼 동청나무 울에 한 포기 우뚝 솟은 벽도(碧桃)가 있고, 패한참 연푸른 꽃이 탐스럽게 피어 있었다. 무엇보다도 기특한 것은 그 처녀가 입고 있던 치마빛이 꽃빛깔과 꼭 같았다는 점이다.

나는 지금도 외로운 생각이 날 때, 봄이 가고 초록(初綠)의 벽도화(碧桃花) 시절을 당하면 그 때의 그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추억의 한 토막이 되는 것이다.

채 만식의 아름다운 꿈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첫째 부인이나 둘째 부인에게서 이러한 아름다운 꿈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채 만식은 그녀들에게 실망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채 만식은 「벽도화에 어린 옛 기억」을 쓰



고 있었을 당시까지도, 그 처녀가 혹 천정에 왔다가 우물가의 벽도가 피어 있는 것을 보면, 그 때의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sup>12)</sup>는 아쉬움을 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을 중시해서 생각하면, 그는 분명 이상주의자요, 로맨틱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채 만식은 오로지 현실에 절망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아름다운 꽃밭과 찬란하게 수놓이는 무지개를 꿈꾸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달구지를 보통 것보다 훨씬 크게 만들자. 그 위에다 지붕을 만들고 두 개의 침대와 책상 하나, 그리고 취사 도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라디오 한 대를 장치하여, 안전한 암소로 하여금 달구지를 끌게 하고, 우리는 글을 써가면서 팔도 강산을 돌아다니 보기로 하자.

채 만식과 장영창과의 대화의 일부이다. 그는 모든 것을 떨쳐 버리고 오로지 창작에만 집념하길 원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에게 그렇게 하도록 놔두질 않았다. 팔도 강산 유람하며 자연을 접하고 그 산수(山水) 속에서 자신의 대작(大作)을 쓰려는 야심은 여순(麗順) 반란 사건으로 무너져 버렸다.<sup>13)</sup> 그의 찬란한 무지개가 차디찬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고야 말았다. 로맨틱주의적인 이상 세계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허무주의의 세계로 떨어져 버린 것은 결코 아니었다.

#### 4) 니힐리즘의 극복

이상과 현실은 언제나 서로 충돌하게 마련이다. 이상이라는 길과 현실이라는 길이 서로 어긋나 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상이 아무리 아름답다와도 냉혹한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채 만식의 경우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작가 채 만식은 현실에 집착하거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탐내지는 않았다. 그가 현실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리거나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것은 현실 도피적인 사상에서 움튼 것이 아니라, 현실을 똑바로 응시하면서 미래에 대한 보다 찬란한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12) 위의 책, 136쪽.

13) 윤한숙, 같은 책, 338쪽.

었다.

현실 부정은 허무적인 비관주의 세제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분명히 채 만식의 작품에는 그러한 빛깔을 띤 것들이 제법 눈에 띈다.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예증은 여기서는 삼가기로 하고, 다만 「패배자의 무덤」에서 무수한 생명의 탄생이 결코 창조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외치는 채 만식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작품의 여주인공(경순)이 애비 없이 자라나는 자기 아들을 ‘강아지’라는 애칭으로 부르는 소리를 들은 경호 {경순의 외}를 통해서 표현되는 내용을 말이다.

‘강아지’라는 말 그것에서 경호는 퍼뜩 명색 없는 생명, 쓸데 없는 생명이라는 것을 연상했던 것이다. 그때와 생명의 창조가 워낙 기뻐서 무엇이든 기뻐한다는 것은 결국 빼놓아진 주관의 착각인 것이다. 애당초 창조부터가 무의미했었다. 발 밑에 짓밟히거나 할 명색 없는 풀, 패지나 개나 마소 같이 만만한 생명, 이 지구 위에서 하루에도 몇 만 명씩이나 새로이 창조되는 인간들 가운데에서 쓸데 있는 생명이 과연 몇몇이나 될 것인가? 악당의 창조를, 창기나 노예의 탄생을, 불익한 살상의 도구를, 결핵균이나 퍼뜨리는 폐병장이의 출생을 어찌 축하해야 한단 말인가?<sup>14)</sup>

이것은 생명의 탄생을 철두 철미하게 부정하는 것이요, 새로운 것의 창조적 가치를 완전 무결하게 때려 부수는 것 이외의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길이 어디로 통하느냐 하는 것도 뻔히 바라보이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허무의 나락(Naraha)이다. 여기에 대해서 장영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의 길은 無限으로 달려가는 時間性 위에 있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길은 不條理한 것을 추호라도 허락하지 않는 좁고, 준엄한 길이었음이 틀림 없었다.

文學을 하는 孤獨한 人間 蔡萬植의 힘은 여기에 머무를 수밖에는 없었던 것 같다.

人類를 象徵하고, 民族과 그 文壇을 象徵하려고 들었던 그 孤獨한 길 위에서.

그는 이러한 자리에서 自己의 삶을 깎아 먹었다.

自己의 生命까지 깎아 먹고 만 것이었다.

14) 蔡萬植, 「敗北者の 무덤」, 『文章』, 1939년 4월호, 54쪽~55쪽 참조.

그의 作品에 무거운 「니힐」이 이따금씩 떠도는 理由는 이러한 곳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15)</sup>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장영창은 채만식이 ‘니힐’에 이따금 빠지는 이유를, ‘인류를 상징하고, 민족과 그 문단을 상징하려고 들었던 그 고독한 절위에서’ 자기의 ‘삶’과 ‘생명’까지 깎아 먹은 데서 찾고 있는 것이다.

여기 덧붙여, 작가 채만식 자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丙子年에 二百五十枚 가량의 短篇 「明日」을 上 中 下 세 번으로 『朝光』誌에 發表했고, ……(중략)……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이 「明日」은 내가……甲戌年부터 意識的으로 文學을 中斷하고서 沈吟하던 最終의 作品 「레디 메이드 人生」(『新東亞』誌)의 發展이요, 인제 나의 文學의 方向의 한가드락이 거기에 根源을 둔것인만큼 나에게서는 重난스런 作品이 아닐 수 없다.

不得已하여 逆說의 일 따름이지 「明日」의 흐름이 오히려 더 健全하게 發展이 된 것이 短篇 「痴叔」(『東亞日報』 戊寅 四五月中)이요……「少妄」(『朝光』誌 戊寅十月)은 ‘오늘’의 습혼 相模를 뉘 亦是 「明日」의 方向이다.

그러나 내가 시방 痛罵하고싶은 心情은 「明日」이 「痴叔」의 方向으로나마도 發展이 안되고서 「少妄」의 方向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가령 내 罪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責任은 내가 저야만 할것인데 「少妄」에서 은근히 싹이 트더니 앞으로 今年 一年中에 쓰려는 短篇이나 長篇까지도 뚜렷이 자리를 잡고 앉은 니힐리즘의 毒한呼吸이다.

나는 그妖氣에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도 (마치 魔物에 홀린듯, 精神은 말짱해지고도 不知不識間) 굴러루 끌려만 들어가는 내自身을 바라보면서 몸을 떨고 있다.<sup>16)</sup>

여기서의 ‘병자년’이란 1936년을 말하고, ‘갑술년’이란 1934년을 말하며, ‘무인년’이란 1938년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1934년에 씌어진 「레디 메이드 인생」이 발전한 것이 1936년에 씌어진 「명일」이요, 이 「명일」의 흐름을 건전하게 이어받은 것이 1938년에 씌어진 「치숙」인데, 「치숙」의 뒤를 이어 같은 해에 씌어진 「소망」에서 은근히 싹이 튼 니힐리즘이 턱 버티고 앉아 있다는 것이다. 이 니힐리즘의 독한 냄새를 이겨 내려고 무진 애를 써서 「정자나무 있는 삽화」<sup>17)</sup>를 발표했는데, 이 작품에 오히려 파탄만 주고 말았다고, 채

15) 張泳暢, 「蔡萬植의 人間과 思想과 그 文學」—韓國의인 象徵의 存在로써—, 『韓國文學』, 1974년 7월호, 279쪽.

16) 蔡萬植, 「自作案內」, 『靑色紙』, 1939년 5월호, 76쪽.

17) 蔡萬植, 「정자나무있는 挿畫」, 『農業朝鮮』, 1939년 1월호, 75쪽~89쪽 및 2월호, 42쪽~59쪽.

만식은 당시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sup>18)</sup> 이것으로 보면, 채 만식은 분명히 니힐리즘을 경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아니, 니힐리즘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아낌 없이 발휘했다고 하는 편이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채 만식은 니힐의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순간에도, 현재가 아닌 먼 미래에 꿈을 설정해 놓고, 이른바 ‘야콥의 사다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가령, 앞에서 잠깐 언급한 「패배자의 무덤」에 있어서의 경순의 아기에 거는 희망이 곧 그것이다. 이 정신은 이상주의적인 빛깔은 물론이요, 로만주의적인 빛깔과도 통한다 하겠다.

### 5) 사회주의 사상과 민족주의적 빛깔

채 만식의 작품 가운데에는 사회주의자가 꽤 많이 등장한다. 이처럼 작품에 사회주의 사상가를 등장시켰다고 해서, 채 만식을 그대로 사회주의 사상가로 치부할 수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광복 직후의 채 만식이 취한 행동을 보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광복 직후 서울 충정로 1가 75 번지로 이사했다가, 다음 해에 서울을 떠나 임피를 거쳐 이리(裡里)로 낙향한 것만 보아도 그것을 알 수가 있다.

광복 뒤에 ‘문학가 동맹’이라는 좌익 문학 단체가 형성되었을 때, 채 만식은 『세계일보』에 관여하는 한편, 그 좌익 문학 단체의 소설 분과 위원장의 일을 맡아 보았다 한다. 그러다가 그 단체가 좌익 단체로 간주받게 되자, 재빨리 김동리(金東里)·조 연현(趙演鉉)·최 태응(崔泰應) 등과 같은 사람들이 채 만식과 더불어 ‘청년 문학가 협회’라는 우익 문학 단체를 조직하려 했던 것이다. 본디부터 정치 문제 때문에 시달리기를 좋아하지 않았던 성격 탓으로, 채 만식은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 조용한 창작 생활에만 일념하기 위하여 낙향의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sup>19)</sup>

이것만 보더라도, 채 만식은 자기 자신이 사회주의 계열의 길을 걸었거나, 그 계열의 길을 걷고자 마음 먹었던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광복 직후만 하더라도, 좌익 작가이든 아니든 간에, 수많은 작가들이

18) 蔡萬植, 「自作案內」, 같은 책, 같은 곳.

19) 張泳暢, 「作家 蔡萬植 先生을 回顧한다」, 『新女苑』, 1972년 6월호, 215쪽.

복괴의 교묘한 유혹에 빠져 속속 3·8선을 넘어 갔던 것이다. 채 만식은 그것을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동시에, 또한 그것을 슬퍼했다.

이곳에서 있으면서 못된 사람들에게 욕을 할지언정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끌려간단 말인지……만일 내가 그곳엔 간다면 나는 나무가 되고 그녀석들은 가지를 잘라내는 전지사(剪枝師)가 될 테니 그 아픔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어—.<sup>20)</sup>

정말 기가 막히는 말이다. 채 만식 자신이 월북을 했다면, 자기는 나무가 되고 그들은 전지사가 되어 나뭇가지를 잘라낼 것이니, 그 아픔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느냐고 토로하는 그 심정은 능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작품에는 사회주의자가 등장하지만, 채 만식 자신은 사회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사회주의자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민족을 간접적으로 암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식민지 시대에 있어서의 우리 작가들은 드러내 놓고 민족의 앞날에 대해서 왈가 왈부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민족의 장래나 혹은 광복에 대한 열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출해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나 간접적으로 암시해야만 되었다.

이것을 시간적인 면에서 살펴볼 때, 고통스러운 현재를 발판으로 삼아 미래에 수놓여질 무지개를 암시한다는 뜻이 된다.

絶望과 苦惱의 現實 속에 살면서, 그리고 ‘니힐’의 그림자로 덮여져 있는 苛酷한 삶의 實相 속에 살면서 蔡萬植이 버릴 수 없었던 한가닥의 所望은 결국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일까!

「레디·메이드 人生」·「痴叔」·「쑥쑥새」·「少妄」·「敗北者の 무덤」·「암소를 팔아서」·「小年은 자란다」·「濁流」等を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悲痛의 交響樂은 作家 蔡萬植의 個人的인 感情만을 흔들고 마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過去에 普遍的으로 깔려 있었던 우리 民族의 悲慘性을 證言的으로 演奏한 그의 슬픈 音樂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다.<sup>21)</sup>

이 말을 곧 채 만식의 작품 속에서 당시의 우리 민족의 슬픔과 괴로움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동시에 그것으로써 “우리는 절망할 수

20) 위의 책, 215쪽~216쪽.

21) 張泳暢, 「蔡萬植의 人間과 思想과 그 文學」, 같은 책, 10월호, 318쪽.

없다”는 것을 은근히 비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채 만식의 작품이 비록 현재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펼쳐 보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로지 현실 폭로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어서의 꿈을 암시해 주었다는 뜻이다. 식민지 시대에 씌어진 작품 가운데에 사회주의자가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꿈, 또는 민족의 희망이랄까 이상이랄까, 아니면 민족의 등불이랄까 광명 같은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광복 뒤에 와서는 약간 그 성격을 달리한다. 그 당시의 사회 현실을 날카롭게 풍자 비판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회주의자를 민족의 이상이나 꿈의 상징으로서 등장시키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에 장 영창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기로 한다.

역사소설 「옥랑사」(玉娘祠)를 쓰시고 난 후 선생님은 그 다음에 손대시기로 계획했던 소설의 ‘테마’가 있었다.

이 계획을 이루시지 못한채 세상을 뜨시게 되었지만 그것은 「트루먼대통령과 스탈린에게」라는 제목이었다고 기억된다.

두개의 강대국가의 중간에 끼어 고심하고 있는 민족—, 즉 사상적으로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양대 ‘이데올로기’ 속에서 몸부림 치고 있는 불우한 민족의 한 사람으로써라기보다는 분명히 작가의 한 사람으로써 어떠한 주장이 드러나게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만일 그 글이 세상에 나왔다면 그것은 「천하태평춘」 이상으로 아이로니칼한 필치로 양거두를 비판하는 것이로되, 그러한 것을 초월한 무엇인가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것이다.

.....(중략).....

“우리민족은 우리민족 나름으로써의 특별한 생활과 이데올로기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어느 나라고 이것을 건드려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선생님의 중심사상이 아니었던가 한다.<sup>22)</sup>

우리 민족의 독특한 성격을 나타내고자 하는 작가 채 만식의 정신적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양대 진영의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될 것이 아니라, 대립되는 두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뛰어넘은 세계를 채 만식은 갈망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것이 곧 민족에 대한 그의 염원이요, 희망이요, 아름다운 무지개와 같은 꿈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가 머릿속에 그려 놓았던 구체적인 희망과 아름다운 꿈을 작품화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하직한 것이었다.

22) 張泳暢, 「作家 蔡萬植 先生을 回顧한다」, 같은 책, 6월호, 216쪽.